

# 김명순 시에 나타난 신여성 의식 연구\*

김윤정\*\*

1. 서론
2. 신여성으로서의 김명순과 근대성
3. 김명순의 내면 의식 양상
  - 3.1.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
  - 3.2.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 3.3. 사랑에 대한 이상주의
4. 결론

## 〈국문초록〉

김명순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작가이자 신학문을 교육한 여성 1세대로서 나혜석, 김일엽과 함께 1920년대 신여성을 대표한다. 김명순은 당시의 신여성답게 전통 사회에 저항하여 여성의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김명순은 근대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심을 기울였고 여성을 질곡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여성을 희생적이고 종속적 존재로 간주하는 봉건적 대가족제도라고 여겼다. 김명순을 비롯한 신여성들이 주창한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은 이러한 봉건적 대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 근대적 가족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매개에 해당되었다. 김명순은 여성이 남성 중심적인 제도에 의해 억압되지 않으며 여성의 이상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기를 꿈꾸었다.

---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2596).

\*\*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러한 신여성으로서의 의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김명순은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지니게 된다. 그는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하나 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특정 존재가 있음을 폭로한다. 이러한 의식은 김명순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김명순은 그의 시에서 사회의 부조리함과 부패함을 비판한다. 더욱이 김명순에게 사회의 부조리는 전통적인 사회로부터 내려오던 여성 소외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김명순에게 근대화된 조선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로 다가온다.

한편 여느 신여성들에게 그러하듯 김명순에게 역시 자유연애와 사랑은 여성의 해방을 위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김명순은 사랑에 대해 숭고함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는 사랑에 관한 이상주의적 관점을 지닌다. 그러나 김명순을 비롯한 신여성들의 이와 같은 관점은 현실의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곧 한계에 부딪힌다. 신여성들이 이상으로 여겼던 자유연애와 사랑은 관념일 뿐 현실과 조화되지 못하고 만다. 김명순의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들은 신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함께 그것들이 당시 시대와 일치하지 못하였음을 잘 말해준다.

**주제어** : 김명순, 신여성, 근대성, 근대적 결혼, 가부장제, 자유연애, 여성해방, 내면의식, 피해의식, 비판의식, 사랑, 이상주의

## 1. 서론

1896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과 일본에서 수학한 김명순은 1917년 『청춘』의 현상문에 응모를 통해 등단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작가이자 1925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창작집 『생명의 과실』을 상재한 탁월한 문인이다. 그녀는 이광수가 『무정』을 쓰던 엇비슷한 시기에 「의심의 소녀」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이끌었던 잡지 『창

조』의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김명순은 시, 소설, 희곡 등의 부문에서 170여 편의 작품을 남겼을 정도로<sup>1)</sup> 남성 작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의 이와 같은 이력은 우리 문단의 주목을 끌어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김명순은 당대의 문단으로부터, 나아가 오늘의 문학사 속에서 소외된 인물일 뿐이다. 당대의 문단은 서정자의 연구에 의하면 김명순에게 발표할 지면조차 차단할 정도로 그를 배타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sup>2)</sup> 오늘날 문학사의 관점 역시 김명순의 문학이 민족 문제나 계급 문제와 같은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대신 여성의 사적 자의식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당대의 상황에서 신여성의 급진적인 주장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정황을 짐작케 하는 동시에 오늘의 문학사가 지니는 해석의 편향성을 노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여성의 문제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성은 사회를 지탱하는 주된 인자이며 특히 신여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대성의 양상을 가늠하는 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한 주요 부분에 대해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다. 특정 주체의 목소리가 과격하고 급진적임은 그

1) 서정자, 「디아스포라 김명순의 삶과 문학」, 『김명순 문학 전집』(서정자, 남은혜 공저), 푸른사상, 2010, 31쪽.

2) 서정자는 당시 김명순이 창작집을 발간한 것이 발표할 지면을 허용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중심의 문단 내에서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김명순은 심한 인신 공격과 비방을 견디지 못하고 축출되었으며 급기야 일본으로 추방되다시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정자는 김명순의 문학이 대부분 자신을 배제한 사회를 향한 대항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위의 글, 35쪽.

3) 여성의 자아 각성과 여성 해방 사상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면서도, 민족보다 개인의 자유나 해방을 중요시하고 남성 지식인들에게 ‘이탈, 방종, 허영, 사치’라는 이미지를 부여받았던 신여성은 연구 주제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노우에 가즈에, 「조선 ‘신여성’의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혁」, 『신여성』, 청년사, 2003, 158쪽.

것이 비정상적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겪는 억압과 핍박의 정도가 과중함을 말해주는 것인바, 이러한 역학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지 않은 문제への 접근은 필연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을 방해한다. 1920년대 신여성들의 과도한 주장들은 남성 작가들에 의해 매도될 성질의 것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입지의 중압감을 읽기 위한 지표로서 해독되어야 했던 것들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사회에 밀어 닦친 근대의 패러다임의 양태와 그 혼란상을 반영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신여성과 근대성을 연관지우는 이러한 관점은 김명순의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명순의 작품은 여느 남성 작가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사회를 읽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명순은 여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자 자아로서 자신의 내면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였던바,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일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길이자 그가 제시한 사회의 이상에 대해 탐색하는 방편이다. 김명순의 왕성하고 적극적인 작품활동은 여느 남성 작가들의 작품과 다르지 않게 우리 문학의 영토에 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명순이라는 작가의 특수한 세계에 의해 우리 사회는 다른 주체가 보지 못한 사회의 이면을 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sup>4)</sup>

---

4) 김명순의 작품양과 문단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김명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김명순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라기보다 신여성 1세대,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관점 하에서 나혜석, 김일엽 등과 더불어 논의되는 수준에 있었다. 즉 김명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의 그러한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로서, 김명순 개인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소설을 주로 썼던 나혜석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할 때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소설, 수필, 시 모든 장르를 균형있게 창작하였던 김명순은 나혜석이나 김일엽에 비해 시작품의 성과가 뛰어나지만 이에 대한 조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김명순의 소설에 관한 연구가 페미니즘 문학의 관점에서 연구되던 것과도 또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시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자아의 내면 의식을 가장 직접적이고 풍부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 작품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김명순 연구의 출발점에

김명순을 논하는 자리에서 작품에 접근하는 매우 일반적인 이유와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당연한 점들이 김명순과 같은 여성 작가들의 경우 지금까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명순의 작품량이 어느 남성 작가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그가 추구했던 이상이 뚜렷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단에서 소외되었던 점은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한다. 특히 김동인, 김기진 등 당시 문단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김명순 등 신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식 매도<sup>5)</sup>는 오늘날까지도 김명순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명순의 시 작품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김명순의 내면 의식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지닌 시대적, 사회적 의미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문학 작품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시는 작가의 내면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장르이므로 김명순의 시 작품에 대한 탐색은 김명순의 의식 세계를 보다 선명하고 총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명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의 실존이 놓여있는 보편적 관계망을 해명케 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순의 시 작품에 나타나 있는 내면의식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김명순에 대해 내려졌던 신여성으로서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또한 신여성들이 보여주는 피상적인 이미지들 너머의 실존의 양상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sup>6)</sup>

---

해당할 것이다.

- 5) 김동인은 「김연실전」, 「선구녀」, 「집주름」의 제목으로 「김연실전」을 발표하는데 이것들은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을 모델로 쓰여진 것들이다. 김동인은 여기에서 이 세 여성을 성적으로 방종하며 타락한 인물들로 묘사하고 있다(이덕화, 『여성 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65-66쪽). 김기진 역시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에서 김명순의 성적 방종이 기생 어머니의 핏줄 탓이라고 하면서 김명순이 ‘나쁜 피’의 소유자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서정자, 앞의 글, 45쪽).
- 6) 내면의식의 탐색의 차원에서 본고에서는 김명순이 강하게 드러냈던 ‘피해의식’과 사회를 향한 그의 적극적 ‘참여의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상주의적 관점’ 등을 범주화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범주의 구성은 철저히 귀납적인 것이다. 이들 의

## 2. 신여성으로서의 김명순과 근대성

김명순은 나혜석, 김일엽과 더불어 1920년대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주지하듯 ‘신여성’이란 개화기 서구화에 힘입어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여성군으로서 전통 사회에 저항하여 여성의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던 이들을 가리킨다.<sup>7)</sup> 이들은 조선의 근대화 물결에 따라 신교육, 신평습을 주창하였으며,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함께 자유연애, 근대적 결혼을 내세웠다.

신여성이 문화의 중요한 현상으로 등장함으로써 여성들은 교육이 여성에게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닐 수 없던 자의식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는 개화기 근대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자유연애 사상이 사회의 실체로 현상하게 됨을 목도하게 되었다.<sup>8)</sup> 신여성들은 편리하고 세련된 복장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전통적 여성과 달리 스스로를 집안 내부에 유폐시키는 존재이기를 거부하였다. 근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

식은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 가운데 가장 전집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서정자의 『김명순 문학 전집』(서정자, 남은혜 공저, 푸른사상, 2010) 중 주로 시작품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도출된 것이다. 이외 김명순의 모성에 대한 복합적 의식, 나르시시즘의 의식이 나타나 있어 김명순의 시를 약 5가지 주제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나 모성에 대한 의식과 나르시시즘 의식은 신여성으로서의 김명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정정도의 거리가 있으므로 제외시켰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면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다룰 김명순의 내면 연구는 김명순을 비롯한 신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계속적이고 깊이있게 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그러할 때 신여성들에 관한 오해와 피상적 이해가 극복될 것이며 당시 여성들이 지녔던 의식의 총체성도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 7)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1920년 여성지 『신여자』가 창간되면서 유행한 것으로, 『신여자』 이외에도 『신가정』, 『신여성』, 『여성』, 『부녀세계』, 『현대부인』 등 1920년대의 잡지에서 신여성에 대한 정의를 빈번하게 실었다. ‘신여성’에 대한 명확한 범주 규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체로 1920년대 여성 교육의 진전으로 부각된 여성 지식인층을 가리킨다. 당시의 잡지는 ‘신여성’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여자로써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여성’이라 하였다. 이배용, 「일제 시기 신여성의 역사적 성격」, 『신여성』, 청년사, 2003, 21-22쪽.
- 8)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13-26쪽.

교육의 세례를 받은 만큼 그들은 과거 여성을 억압하였던 유교적 덕목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의 온전한 주체로 설 것을 꿈꾸었던 것이다.

물론 신여성의 이상이 당시 공고했던 봉건 질서의 해체에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가에 관한 공과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고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 문단에서 페미니스트 1세대라 알려져 있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삶의 궤적을 고찰해보자면<sup>9)</sup> 신여성의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뿌리 깊은 봉건적 습속을 지니고 있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내걸었던 신여성들의 이상은 헛소리에 불과했을 것이며, 남성들에게 신여성은 단지 호기심의 차원에 놓이는 존재 이상이 아니었을 터이다. 그러나 신여성의 등장은 당시 우리 사회에 문화적 충격이라 할 만큼 새로운 것이었으며 당시의 근대적 패러다임이 일으켰던 변화만큼 혼돈스러운 것이었다. 신여성은 그들이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였건 그러지 않았건 간에 당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되었던 것이다. 즉 신여성은 조선의 근대화에 있어 주된 문화적 축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당시 신여성들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일천하였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편협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에 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근대성의 범주 속에서 심도있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sup>10)</sup> 신여성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등장하였던 문화의

---

9)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남성과 대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 신교육 1세대들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다. 김명순은 고국에서 축출되어 일본의 정신병원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되며 나혜석 역시 행려병자로 떠돌다 비참하게 죽게 된다. 김일엽은 불가에 귀의하는 도피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이덕화는 근대성이라는 주제가 한국문학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문제인바, 신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는 근대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덕화는 여성문학을 근대성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혜실의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하는 나무, 2000)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덕화,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59쪽.

코드이자 필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근대화와 더불어 점차 정립되기 시작하였던 새로운 풍속과 결혼 제도를 고려할 때 신여성은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논제에 해당된다. 과거 부로(父老) 중심의 대가족 제도로부터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sup>11)</sup>의 한가운데엔 신여성이라는 코드가 놓여있던바, 신여성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지와 존재를 드러냈던 자들에 해당한다. 즉 신여성은 당시 도래했던 근대적 문화의 주체이자 과거 봉건적 풍습을 해체하는 중심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적 풍습을 만들면서 당시의 문화 흐름을 이끌어갔던 신여성으로서 김명순 등 여성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결혼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과거 봉건 시대의 결혼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점이 가장 부조리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결혼을 강조하였다. 자유연애는 자기에 의해 결정되는 근대적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러한 자기 결정에 의한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 고려되는 요건은 따라서 과거 봉건제에서와 달리 가문의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 된다.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사랑’이 근대적 결혼에서 결정을 위한 핵심 근거가 되는 사정도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sup>12)</sup> 김명순을 비롯한 신여성들이 자유연애에 열광적으로 매달렸던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애야말로 새로운 결혼 풍습을 성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11) 1920년대 초 자신감에 차 있던 신여성들의 자유 연애와 자기 의지에 따른 결혼을 주장한 것은 봉건적인 ‘부로(父老)’ 중심의 가족 제도를 비판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과거의 부자중심의 가족제도로부터 부부 중심의 ‘단가(單家, 핵가족)’ 가족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 생활을 누리기를 희구하였다. 박용옥,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비판」, 『신여성』, 청년사, 2003, 51-52쪽.

12) 자유연애, 자기의지에 의한 결혼을 둘러싸고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사랑’이다. 이때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적 결혼제도를 위한 매개였던 셈이다. ‘사랑’은 가문을 중시하는 봉건적 신분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혼인 제도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했던 요소였다. 김윤정, 「1920년대 신여성의 ‘사랑’과 근대적 결혼 제도의 함수관계」, 『한국언어문학』 제62집, 2007, 362쪽.



신여성들의 주장대로 결혼을 위한 새로운 풍습의 요건으로 자유연애가 상정되는 일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인다. 신여성들이, 특히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이 ‘연애론’, ‘정조관’, ‘결혼관’ 등에 관한 평문을 써가며 열렬히 개인주의적 자유연애 사상을 전파하였고 실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정황은 자유연애가 결혼의 근대화에 있어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들은 과거 부조리한 결혼 풍습을 파기한다는 점에서 자유연애를 부르짖는다. 물론 신여성들의 이러한 행태는 남성들의 눈에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것이다. 여성들이 외치는 자유연애와 결혼 및 이혼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결혼의 풍습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순 등을 향한 남성 작가들의 분노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주장이 표면적으로 성적 방종의 양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결혼 제도에 의한 미시적 권력 쟁투의 장(場) 속에서 더 이상 고정된 노예 역할을 떠안기를 거부하는 자기 생존의 몸부림으로서의 의미마가 가로지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에게 부로(父老) 중심의 가족 제도란 곧 생존을 위협하는 억압과 핍박의 족쇄에 다름 아니다. 부조리한 가족 제도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노예의 그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sup>13)</sup> 여성의 몸은 전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희생의 도구에 해당한다. 여성들은 살아있는 가족은 물론이고 죽은 가족 또한 봉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결혼 제도는 여성으로 하여금 그가 처한 이러한 지위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복합적 장치들을

13)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 제도는 여성의 인간성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개선 내지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써 거론되었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 여성은 결혼을 하면 며느리요 아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순종자로 위치지워져 가장 참담한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성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축첩을 하여도 여성은 이를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며 자신의 의사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자식에 대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부로(父老) 중심의 대가족 제도에 의해 빚어진 부조리였다. 이배용, 앞의 글, 40쪽.

마련해왔으므로 여성이 스스로 노예적 지위를 떨쳐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결혼 제도의 역학 구조를 볼 때 신여성들에게 자유연애가 차지하는 위상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결혼제도를 해체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연애가 새로운 결혼제도 정립을 위한 논리적 매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대적 결혼 제도 내 미시 권력 형성의 거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은 신여성들의 한계에 해당한다.<sup>14)</sup> 근대적 결혼 제도는 당사자들의 자유연애에 의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과거 봉건적 결혼 제도에 비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향상된 지위를 보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유연애를 통해 형성되었던 ‘사랑’이 가족 내 여성의 권력을 보장하는 기제가 되지는 않았다. 신여성들이 자부했던 ‘교육’이나 ‘재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있는 한 여성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불모지인 것이다. 자신의 권위 향상을 위해 신교육, 자유연애에만 매달렸던 신여성들의 패착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신여성들의 자유연애와 결혼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여성들이 정작 얻고자 했던 본질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구하게 한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삼중의 거시적 억압과 복잡다단한 일상의 미시적 장치들을 모조리 파악하고 해소하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이것들이 지닌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작품, 곧 작가의 내면은 개인의 실존적 욕망과 사회의 권력화된 욕망들이 중횡무진으로 가로지르는 암중모색의 지대이기 때문이다.

---

14) 사랑과 연애가 근대적 결혼 제도의 매개가 되었지만 결혼 제도의 유지를 위해 섹슈얼리티는 철저히 억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 됨으로써 ‘사랑’과 결혼제도 사이에는 불일치의 관계가 성립된다. 김윤정, 앞의 글, 370-371쪽.

### 3. 김명순의 내면 의식 양상

신여성의 등장은 근대 교육으로 인한 여성의 자의식 강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근대 교육의 결과 여성이 접하게 된 자유, 평등사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교육과 인권의 면에서 남성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키우도록 하였다. 이 시기 교육받은 여성은 직업 등을 통해 여성도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여성의 우수성과 주체성을 발휘함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진보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성장하는 진보적 의식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인습들과 충돌하였다. 여성의 늘어나는 교육 기회와 성장하는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과 가부장적 종속적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풍습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굴레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신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보의 문제를 대전제로 삼는 일은 김명순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기 정체성은 자아의 존엄성과 권리를 확보하고 억압과 소외의 사태를 타개함으로써 형성되는 독립된 존재감을 가리키는바, 뿌리 깊은 전통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진 불편부당한 지위를 고려할 때 자기 정체성 확보는 온전한 인격체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체성 확보의 문제는 우리 역사상 거의 최초로 사회 전면에 등장한 신여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로 여겨졌다. 교육은 받았으나 생물학적, 사회학적 억압의 제도 속에 놓여 있던 여성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존엄성 확인은 물론 생존의 차원의 문제였으며 따라서 신여성들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이중삼중의 억압을 타개하는 일이었다. 우리 사회의 교육받은 여성 1세대인 김명순의 내면 의식은 이처럼 여성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신여성으로서 추구했던 이상 사이의 길항 작용 속에서 해명될 수 있다.

### 3.1.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

1920년대 대표 신여성 3인 가운데에서 김명순은 누구보다도 시를 중점적으로 창작한 작가이다. 김명순은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170여 편의 작품들 가운데 개고(改稿)를 포함하여 100여 편의 시를 창작하였다.<sup>15)</sup> 문예 작품들은 작가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는 작가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실질적인 내면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김명순은 그의 시편들을 통해 당시 그가 겪었을 개인적, 사회적 경험들과 관련한 선명한 반응들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김명순의 시편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정서로 ‘분노’, ‘설움’, ‘아픔’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정서가 1920년대 당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유사하면서도 가해자가 전제된 채 더욱더 절망적이고 처절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신여성으로서의 김명순의 고유한 정서이자 사회에 대한 여성의 ‘피해의식’이라 말할 수 있다.

세상이여내가당신을써날때  
개천가에누엇거나들에누엇거나  
죽은시테에게라도더학대하시오  
그래도부족하거든  
이다음에나가튼사람이잇드래도  
할수만잇는대로또학대하시오  
그러면나는세상에다신안오리다  
그래서우리는아주작별합시다.

「遺言」 전문<sup>16)</sup>

‘유언’이라는 극단적인 제목을 통해 위 시의 시적 자아가 표명하는 의

15) 이같은 사실은 서정자·남은혜 편 『김명순 문학전집』(푸른사상, 2010)에 의거함.

16) 위의 책, 118쪽. 본 논문에서의 시 인용은 별도 인용 페이지 없이 이 책을 활용함.

식은 단연 ‘피해의식’이다. 시적 자아는 자신이 ‘학대’받았음을 서슴없이 진술하면서 가해자의 ‘학대’가 상황과 대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한정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개천가에 누엇거나들에누엇거나/죽은시테에게라도더학대하시오’, ‘할수만잇는대로또학대하시오’에 쓰인 반어적 어법은 가해자의 학대가 끝도 없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행됨을 폭로하는 대목이다. 아무리 ‘학대’해도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시체’에게까지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가해자는 상대를 학대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비뚤어진 새디스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가해자에 관한 이같은 극단적인 형상화는, 당시의 시적 경향이 율분의 심정을 절제없이 드러내는 감상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강렬한 것으로서 시적 자아가 경험했을 전폭적인 핍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는 시적 자아가 겪었을 불합리한 억압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 가해자는 ‘세상’이라 표현되어 있을 뿐 정확한 인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제목의 ‘개고(改稿)’의 시에서는 ‘조선’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개고의 글에서 화자는 ‘조선’을 ‘사나운곳’으로 칭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시적 자아의 상처가 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이 자아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전면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시에 구체적인 갈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은 시적 자아의 진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적 자아의 정서에 관한 뚜렷한 언급은 시적 자아가 겪었을 괴로움과 소외감을 충분히 드러낸다. 시적 자아의 강한 피해의식은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학대’를 받았을 시 지니게 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명순은 문필활동을 하던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한다. 문필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김명순은 조선을 계몽시켜야 한다고 하는 지도자 의식을 드러낸다.<sup>17)</sup> 김명순에게 조선은 여느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모국이자 고향이었던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그러나 김명순이 ‘사나운 곳’이라는 피해의식을 드러내며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김명순이 조국에서 받았던 상처가 상당히 컸음을 말해준다.<sup>18)</sup> 더욱이 김명순이 일본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 망명을 한 것이 아니고 평소 여성의 권익을 내세우는 인물이었음을 볼 때 가해의 주체는 추상적 조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권력화된 남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의 경우 위의 시 외에도 피해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로 「내가삼에」가 있다.

검고붉은적은그림자들,  
 번개치고羊뿔돋내마음에눈와서,  
 초각초각찌여진붉은꽃닙들갓치도,  
 회오리바람에 올났다쳐러지듯,  
 내어두운무대우에한숨짓다.  
 나는무수한검붉은아해들에게못노라.  
 오오虛空을잡으려든서름들아,  
 憤怒에매마저부셔진거울조각들아,  
 피마자피에저즌아해들아,  
 너희들은아직쫓쫓한피를求하는가.  
 아아너희들은내마음의압흔아해들,  
 그릇탓이내마음은피마저깨젓노라.  
 내아해들아너희는어름에서 살몸,  
 눈내려죽지말고北으로 北行하여,

17) 김명순의 사회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글에 수필 「父親보다母親을尊崇하고녀자에게정치사회문제를맞기겠다」, 「同人記」 등이 있다. 특히 「同人記」에서는 “自己가남들과가타賣名心이읍스며 志操가늠다고 글가튼것이라도 잘내지안호라하지 말고 우리는한거를떠나가서 사려져가는쌍을 북도다이크리라는熱誠을가져야할 것이안닌가?” 함으로써 문필가들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18) 서정자는 김명순의 삶을 ‘디아스포라’의 그것으로 보고 있는바, 서정자는 김명순의 망명을 1924년 후반부터 글을 발표할 지면을 얻지 못하고 문단으로부터 배척당하던 정황과 연관시킨다. 서정자, 앞의 글, 51-56쪽.

어려서 부터서 땃치고쫓땃치라.

「내가삼에」 전문

위 시의 시적 자아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번개치고  
고뿔세몰든내마음에눈와서,/ 조각조각찌여진붉은꽃닙들갓치도,/ 회오리  
바람에 올났다떠러지듯,/ 내어두운무대우에한숨짓다.’라는 진술을 통해  
서이다. 그에게 상처는 열정을 품었으나 그것이 사회에서 외면당했을 때  
겪게 되는 좌절감에서 비롯된다. 시적 자아는 열정을 품었던 때의 순수했  
던 심정을 ‘뿔세몰든내마음’이라 표현하고 있거니와 이어지는 ‘虛空을잡  
으려든서름’은 이러한 정서의 무상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더욱이 ‘조각  
조각찌여진붉은꽃닙들’, ‘憤怒에매마저부셔진거울조각들’은 순수했던 마  
음의 상실이 자아를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시키는지 암시해준다. 이밖에도  
‘피마자피에저즌아해들’, ‘피마저깨진 내마음’ 등은 시적 자아의 절망  
감을 매우 강렬하고도 처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구절들이다.

한편 위 시의 시적 자아가 느끼는 좌절과 상실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의식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시적 화자가 ‘아해’를 청자로 하여 ‘아해’에게 당부  
하는 형식으로 시를 이끌어가는 데에서 드러난다. 화자는 ‘아해’에게 ‘너  
희들은아직쫓쫓한피를求하는가’, ‘너희는어름에서 살몸’이라 하고 있는  
바, 소중한 ‘내아해들’에게 이처럼 반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긍정적 가치  
를 부정하고 있는 점은 시적 자아가 자신의 좌절이 타인에 의한 것이라  
여긴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시적 자아는 자신의 좌절과 관련하여 피해의  
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가해자를 전제로 하는 의식이다.

김명순의 시편들에는 위 시에서처럼 ‘설움’, ‘분노’, ‘괴로움’(「유리관 속  
에서」), ‘아픔’(「불꽃」) 등의 정서가 빈번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서들  
은 일견 1920년대 낭만주의적 성향과 유사하여 김명순의 시적 특성을  
이들과의 보편성 속에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명  
순의 정서는 악(惡)의 존재인 가해자를 상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유행했던 ‘님’ 지향의 일반적인 낭만주의 정서와 다르다. 김명순의 내적 의식에는 상황과의 투쟁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명순의 좌절감과 피해의식도 그 결과 얻게 된 감정이었다. 또한 김명순의 투쟁의 자세는 김명순이 이미 이상 실현을 향한 의지를 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3.2.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김명순이 내면에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그를 지배하던 설움과 분노 등의 감정이 외적 세계와의 관련 속에 형성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설움과 분노, 고통과 괴로움 등의 정서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피해의식은 그것이 순전히 내향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 성질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의식은 세계와의 교섭이 전제될 때 발생하는 감정인 것이다. 따라서 피해의식의 이면에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교응이 가로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의식은 대사회적 의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김명순의 자의식을 고구할 때 그가 견지했던 사회의식을 살펴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김명순이 강한 피해의식을 지녔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강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바, 김명순이 가졌던 사회의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김명순의 자의식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人工의드눅흔城으로둘러싸인못물에/銀杏色의苔族은자라서느러  
서/은은히힘길너서는……………/ 동녹의 時代에 挑戰하다//사람들은  
다못가애아득거려/ 피를일코넘어질새/ 風浪은모든명혼을사라쳐가  
고/腐敗는모든肉體를占領하다// 하늘우에는 오히려 밋친바람/ 싸  
우에는아즉腐敗쫓치지안엇슬새/ 한돌노비즌사람이낫하나서/자죽  
빛의 幻想으로윈세상을 싸덥다// 여기새로운세상에 봄이오다/ 女人  
은낫치안코 男人은기르지안코/ 遠近 善惡 美醜를폐지한새가/ 우



리들의마음속으로붓혀오다// 여기새로운봄의깃거운새가오다/ 洞窟  
의暗流가太陽을向해노래하고/ 시내물이종달의노래를어으를새가/  
우리들의마음속으로붓혀오다

「幻想」전문

상징주의적 어법으로 쓰여진 위 시는 1920년대 당시 상징주의가 유행 하던 정황을 상기시킨다. 전반적으로 암울한 어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못’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특수한 장소를 상징하고 있다. ‘못’은 부패하고 암담한 주변과 대비되어 ‘은은히 힘을 기르는…………’ 장소를 의미한다. ‘못’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피를 잃고 넘어진’다면, 또한 ‘못’ 주변에 ‘인공의 드높은 성’이 있어 ‘못’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세력으로 존재한다면, ‘못’은 ‘도전’이 이루어지는 환상과 희망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색의 菰族’은 힘겨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짝을 틔우는 ‘은은한 힘’에 해당한다.

한편 ‘못’과 그 주변을 대비시키고 주어진 환경을 ‘부패 그치지 않는 곳’이라 보는 점에서 시인이 지닌 사회에 관한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시의 화자에 의하면 지상의 부패함은 ‘風浪’처럼 ‘영혼’과 ‘육체’를 ‘점령한다’. 부패함으로 인식되는 지상은 ‘동굴의 암류’로 표현되고 있다. 지상을 에워싸고 있는 ‘暗流’가 억압적인 것은 그것이 ‘인공의 드높은 城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부패한 사회는 넘기 힘든 ‘높은 성’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지상에 관한 일련의 이와 같은 상징들은 시인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에서 화자는 단지 절망과 암담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서를 일으키는 근원에 대해서 인식의 시선을 넓히고 있는바, 그 근원은 곧 ‘부패한 사회’인 것이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부패한 사회’에서 ‘영혼’과 ‘육체’가 파괴되어 감을 시의 화자는 말하고 있다.

상징 어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없이 드러내는 수법은 1920년대 낭만주의 사조의 경향 속에서 익숙한 것이다. 위 시에서처럼 상황에 의한

절망감과 암담함의 정서를 표출하는 일 역시 당시로서는 흔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시는 보다 명확한 세계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땅’을 ‘부패가 그치지 않는 곳’으로 규정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사회를 초점화시켜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다. 더욱이 위 시의 화자는 당대의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단지 좌절과 설움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은히 힘을 길러’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銀杏色の苔族’, ‘한돌노비즌사람’, ‘자줏빛의 幻想’, ‘새로운봄’ ‘종달의노래’ 등은 모두 화자가 지닌 적극적인 현실 투쟁의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즉 화자는 ‘못’을 중심으로 ‘동녹의 時代에 挑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를 뚜렷이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여성 시인으로서의 김명순이 지니고 있던 특수한 부분으로서 당대 여타의 낭만주의자들과도 구별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시의 화자가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 사회는 어떤 모습의 그것일까? ‘지상의 부패함’이 극복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 마디로 그곳은 ‘드높은’ 억압이 사라지는 때이자 ‘새로운 세상의 봄’에 해당하는 때인바, 시인은 그곳을 ‘女人은낮치안코 男人은기르지안코/ 遠近 善惡 美醜를폐지한새’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이 차별되지 않고 원근, 선악, 미추로 상징되는 이분법적 질서가 사라지는 세상, 중심과 주변의 구별이 와해되어 모든 존재가 대등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이 그것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위의 시에는 낭만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일반적인 낭만주의 풍조와 구별되는 뚜렷한 사회 인식이 놓여 있으며 그 또한 남성과 여성 등의 이분법적 구도를 부정하는 진보적인 의식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는 곧 김명순이 가졌던 신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를 부패한 곳이자 ‘늘 싸움이 있는 곳’(「싸흠」), ‘끓는 가마속의 지옥과 같은 곳’(「沈黙」), ‘진흙의 바다’(「빗흘바래고」) 등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은 모두 시인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석공의 노래」에는 여성으로서 바라본 사회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필경 내生前부터저리케-/ 그이가穩健히이야기한다/ 저돌을실어다가  
가 가운데붉은彩色으로/ 솜씨있게우리집무덤을빛내주세요-/ 七歲  
로부터婦道를닥어오든朝鮮處女/ 자리지도 앉아서 七惡을徵게받  
었다/ 淑女二軍을섬기지말것이라고/ 秋霜같은家風에는順從만이  
婦道니/ 節操높은 士夫의 家門을辱안되이려고/ 誓約의劍을가삼  
에안든것이다./ 나열두살에 눈을감고/ 가마타고/ 시집 갖더라오/ 연  
지곤지로 丹粧한 얼굴을/ 눈물로 적시면서 親庭을떠났지오/ 그花  
冠이야말로 무거웁디다/ 그稱讚이 더무서웁디다/ 나열여섯에 處女  
寡婦 되었지요/ 罪人의 배옷을입고 집행이집고/ 喪輿뒤를 걸어서  
걸어서/ 멀리멀리 무덤까지 갖었지요,/ 그리고/ 산각시의相對役이  
든 이름뿐인郎君을/ 깊이깊이 묻어버리었지오.

「석공의 노래」 부분

위 시는 ‘석공’ 화자의 목소리로 죽은 남편의 묘에 세울 비석을 새기러 온 손님인 ‘암전한 아씨’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암전한 아씨’는 16세에 죽은 자신의 남편을 위해 ‘돌’을 엄선하여 비석을 새기고자 한다. 위 인용은 “저 돌을 실어다가 가운데 붉은 채색으로 솜씨있게 우리집 무덤을 빛내주세요”로 시작하고 있으며 ‘아씨’는 곧이어 자신의 한스런 일생에 대해 ‘穩健히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7세 때 ‘婦道’를 익혀오던 시절부터 16세에 처녀과부가 되기까지의 ‘아씨’의 이야기는 설움과 한으로 점철되어 있는, 전통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아기 때부터 진리로 섬겨오던 ‘婦道’ 속엔 여자로서 경계해야 할 ‘七惡’은 물론 ‘不事二軍’의 규범이 법도로서 굳게 놓여 있다. 또한 여성은 가문을 위해 존재하며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무조건적인 ‘順從’만을 행동 양식으로 삼아야 함을 ‘婦道’는 가르치고 있다. 이들 행동 양식들은 ‘서약의 검’으로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들이다. ‘아씨’는 12살에 시집을 온 것으로 보아 조혼의 풍습대로 결혼한 여성이다. ‘아씨’는 어린 나이에 ‘친정을 떠났’던 일을 매우 폭력적인 일로서 기억하고 있다. ‘단장한 얼굴을 눈물로 적시던 일’, ‘화관이 무겁디무겁’게 느껴지던 일, ‘그칭찬이 더무서웁디다’ 하는 말들은 조혼이 어린 여성에게 가했던 억압과 두려움의 심정을 잘 전달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16살에 과부가 되어 남편의 상을 치르는 운명을 겪어야 한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속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씨’의 이야기는 192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낯설지 않은 여성의 삶에 해당한다. 조혼과 과부 재가 금지의 풍습은 조선시대의 국법으로서 전해오던 오랜 제도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풍습은 갑오경장에 이르러 법적 규제가 풀리게 되지만 여전히 이들 제도가 관습으로 남아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시대 ‘婦道’라는 이름으로 규범화되었던 여성에 대한 법제들은 전 역사시대를 통해 있어왔던 여성 억압적 지위를 더욱 철저하고 확고히 규정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500여 년간의 조선의 유교적 풍습으로 인해 여성은 헤어날 수 없는 핏박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婦道’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그 이면에서 여성의 의식은 물론 영혼까지 파괴하는 사나운 ‘칼’에 다름 아니었다.

여성을 억압하는 결혼 제도는 조혼이라든가 재가를 금기시 하는 관습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남성 중심적 결혼 제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은 ‘가문’과 ‘부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남성주의적 결혼관은 여성을 결혼과 더불어 친정인 본가로부터 뿌리를 뽑아내는 일에 해당한다. 남성중심의 제도 속에서 여성은 영원한 이방인이 되어 ‘부도’에 의해 ‘가문’을 섬겨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 속에서 여성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상실된다.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 속에서 굴레를 쓴 채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다.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는 여성에게 실존을 위협하는 폭력에 해당한다.

전통적 유교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의 성립하면서 나타난 법적

차원에서의 결혼 제도의 변화는 사회 풍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여성의 의식을 각성시켰다. 개화기에 이르러 자유연애, 연애결혼 사상이 확산되고 여성 교육이 강조되던 것은 단순한 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교육받은 여성 1세대 중심으로 신여성이 등장한 것도 이와 관련되고 여성이 전통적 유교사상을 사회의 저변에까지 무너뜨리려 했던 것도 이의 연장에 놓인다.

문제는 법이 바뀌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중심 세력이었던 남성이 자신의 의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남성은 여전히 여성이 남성의 이해에 맞게 ‘부도’를 따라주기를 바랐고 여성이 여성 자신을 위해서가 자기의 가족 전체와 자기의 가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남으리라 믿었다. 오랜 세월 지탱해오던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남성의 의식 속에 여성은 자아를 내세우는 온전한 인격체라기보다 자신의 종속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남성에게 여성은 근대화가 진행되고 인간의 주체성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열외로 남는 특수한 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남성에게 여성은 근대화의 예외적인 영역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0년대 신여성들이 자아를 주장하고 자유 연애 사상을 말하며 새로운 정조관을 내밀었을 때 남성들이 패닉에 빠졌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3.3. 사랑에 대한 이상주의

여성은 남성과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은 이해관계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그것은 사회의 대부분의 제도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기인하지만 이 점은 그러한 남성중심적 제도가 보편적인 것이라 여기는 남성들에 의해서는 인식될 수 없다. 그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은 결혼 제도이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500여 년 간 유교 사상에 의해 통치되던 조선 사회를 거치면서 여성이 남성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요컨

대 결혼은 여성에게 피할 수 없는 뜨거운 지대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1920년대 신여성이 결혼제도의 변화를 환영했음은 물론이고 자유연애를 부르짖었던 정황은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신여성들에게 자유연애와 새로운 결혼제도는 여성 해방을 위한 지름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연애와 결혼제도는 당시의 신여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양면이 부합했던 것은 아니다. 자유연애는 새로운 결혼 제도의 매개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에 의해 성립되는 결혼의 영역이란 신여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연애와 등가의 것이 아니었다. 성립된 결혼은 더 이상 자유연애와 병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은 성립되는 순간 별개의 제도의 규범을 요구하는 지대이다. 또한 결혼이 제도라는 점은 그 영역이 미시적 권력 투쟁의 장이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관습이 보장하는 남성중심적 의식을 지니게 된다. 여성과의 미시적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지점에서이다. 이 때 자유연애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여성의 권력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수 없었는데, 자유연애 의식을 지니고 있던 여성들이 이 변화된 장(場)의 차원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데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나혜석과 같은 신여성들이 결혼 제도 속에서 배척되었던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명순에게 자유연애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가 생각했던 ‘사랑’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고 그것이 근대적 결혼 제도와는 어떻게 관련되었을까?

꿈나라의愛人이시어/ 只今이세상안닌甘美의노래에/ 고요히잠든  
귀를기울였나이다// 얼마나自由로운調律이오리까/ 몸은淨化되어  
날개를달고/ 꽃피운空間을날으려나이다// 浮世를운들그대와나/ 내  
압해大路를것지안코/ 그대압해洞窟을찾지안하도다// 그러나놀리  
엇든우리들을/ 解放하는노래가들려지오니/ 우리는꿈길을버립시다  
// 愛人이시어愛人이시어/ 여귀幽玄境의길에/ 길이잇스니이리오십  
쇼// 愛人이시어愛人이시어/ 사람모르는그곳에/ 길잇스니날개를퍼  
십소

「蠱惑」 전문

1920년대 낭만주의 시단에서 ‘님’에의 지향의식은 일종의 시적 규범이었다. ‘님’의 상실과 ‘님’에의 그리움의 정서는 이 시기 대부분의 시인들이 보편적으로 드러냈던 양상이다. 김명순의 위 시에서 등장하는 ‘愛人’ 역시 그와 같은 큰 범주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시의 화자 역시 ‘愛人’에 대한 갈망을 영탄의 어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시에는 당시 여타의 낭만주의자들에 비해 ‘님’에 관한 보다 명확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얼마나 자유로운 조율이오리까’, ‘몸은 정화되어 날개를 달고’, ‘놀리었든 우리들을 해방하는 노래’ 등의 구절들은 김명순의 지향의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유’, ‘정화’, ‘해방’의 의미소들은 억압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것의 극복 의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길’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시적 자아에게 그 ‘길’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호한 ‘꿈길’이 아니며 ‘幽玄境’에 놓인 것이고 ‘사람 모르는 그곳’에 있는 ‘길’인 것이다. 화자는 ‘애인’과 함께 하는 그것이 자유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길’이자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시인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애인’과 함께 만드는 그 ‘길’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 말하자면 ‘사랑’은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켜주는 이상(理想)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시에서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大路’도 아니고 ‘洞窟’도 아닌 구체적인 내포를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흔히 주어지는 편리한 길도 아니고 어둡고 음습한 도피의 길도 아니다. 시인에게 ‘사랑’은 숭고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힘겹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해당한다.

‘사랑’을 숭고한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김명순의 의식은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신여성들을 방탕하고 문란하다고 간주하는 남성들의 시각과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다. 김명순에게 ‘사랑’은 여성들의 억압과 질곡을 해소시켜 주는 탈출구에 해당된다고 여겨졌던바, 이는 단순한 낭만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절실함을 지니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명순은 자신의 수필 「理想的戀愛」에서 비연애(非戀愛)와 연애(戀愛)를 구별하면서 전자가 ‘상대방을 욕되게 하고’ ‘상대방을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법칙(法則)과 도덕률(道德律)을 무시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이상을 품고 결합하려는 친화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sup>19)</sup> 이처럼 김명순에게 사랑은 곧 이상의 수준에 놓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이상적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코자 하였다.

김명순이 사랑을 이상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음은 「우리의理想」, 「외로움의부름」, 「오오 봄!」, 「위로」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오오 우리의理想-/ 이는우리의님이로라/ 그이는 그발등의불을쓰지 안코/ 남의발등의불을쓰려하지안는다// 오오우리의평안한사랑?/ 그는괴로움가운데선사라지리라/ 누구라서 나무에서생선을구하라/ 우리는이답답한괴로움을더못참겠다// 그러면우리의님이아/ 그러면우리의理想아/ 아즉우리는戰線에있다/ 아즉우리는死境에있다

「우리의理想」 전문

‘사랑’이 단순한 낭만적 감상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구하는 이상인 한

19) 김명순의 연애와 비연애에 관한 생각은 “모-든男子와女子의 가튼理想을품고結合하려는 親和한狀態로 未及한憧憬을 理想的戀愛라한다. 하지만 우리의戀愛는同志두사람이 宗教的으로 敬虔하며 가튼信念으로 共鳴하는데起因해서 가튼目標를向하고 前進하는歸一點에서 完成하겠다고 讚美치안을수업스리라한다.……그러나 이 社會에서 頻煩히 演出되는 몇가지를드러 非戀愛라함은 一, 그의다른사람과의戀愛告白을無視하고 그相對者를 辱되게하며,戀愛한다고 淫行을삼꾸는것 二, 술醉하여 그집門을두다리며 그相對者를辱되게하는것, 亂雜히事實없는일을글을써내이는것 三, 너무空想한結果戀愛라고 없는肉의關係를詐稱해서 相對者를 거죽더럽히는것 四, 亦是空想의結果로 他人압해서 그憧憬하는 對象을맞나서 狎한반말로 남의거짓感情을사는것 五 어느對象에게戀愛를告白하다가 拒絶을當하고一時間이지나지못해서 辱하는 것”에 나타나 있다. 김명순, 「理想的戀愛」,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654쪽.



그것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된 투쟁을 통해 어렵게 획득되는 것이다. 이상적 의미를 띠는 사랑은 삶의 질곡을 타개해 주는 것이지 유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의 시는 김명순이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령 위의 시에서 ‘님’은 ‘理想’과 동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답답한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전선에, 사경에 있다’ 함은 ‘님’과의 사랑이 그저 달콤하고 ‘평안한’ 낭만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 중에 놓이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시의 화자는 ‘사랑’을 통해, 또한 ‘사랑’을 향해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인에게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현실과의 관련 속에 놓이는 구체적인 것이다.

모-든 불상한우리의괴도가/ 그이를 우리들의안으로모셔오다/ 오오  
 봄! 모-든산생명을꽃피울봄/ 우리들이 새로히닫는길을바라고/ 더산  
 기슭등색이에파랗파랗/ 더바위패이곳에도올도올// 봄은 왔느냐? 왔  
 느냐? 하고/ 모-든생명은그썩을내뵈인다// 모-든행복된 희망이/ 괴  
 로움업시는이루어지지안는다/ 오오苦痛! 이아말로우리라는사랑/  
 우리들이 닥가가는 길가운데/ 팽이꽃마다맛부드치는돌덩이/ 뻥히  
 고또뻥히 벼랑과벼랑// 苦痛은더잇느냐? 더 잇느냐?고/ 모-든길가는  
 이들은 그열성을다한다// 모-든행복된 생활의시초가/ 우리의歷史  
 우리의年代를되서오다/ 오오봄! 모-든生命을살려내인봄/ 우리들이  
 부르짖는人道를기다려/ 사람들의얼굴마다버룩버룩/ 사람들의마음  
 마다 반듯반듯// 罪惡은더잇느냐? 더잇느냐?고 / 모-든착한이들이  
 참되게우스리라

「오오 봄!」 전문

위의 시에서 ‘봄’으로 묘사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산 생명을 꽃피우’고 ‘모든 생명이 싹을 내뵈이는’ ‘봄’의 생명력에 비유되고 있다. ‘봄’을 맞이하며 시의 화자는 희망과 설렘으로 고무되어

있다. ‘사랑’은 ‘봄’과 같은 활기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이때의 ‘사랑’에는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시의 화자는 ‘모든 행복된 희망이 괴로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이 단순히 환희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고통’과 ‘열성’을 요구함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깡이 끝마다 맞부딪히는 돌덩이’, ‘맥히고 또 맥힌 벼랑과 벼랑’의 길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랑’이 유희의 차원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숭고의 차원에 놓이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의 화자는 ‘사랑’을 ‘모든 생명을 살려내인’ ‘人道’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행복된 생활의 시초’이자 ‘역사’와 ‘시대’를 아우르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위 시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를 살펴볼 때 김명순에게 ‘사랑’이 세속적인 의미를 띠는 감정적인 성질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신여성들의 자유연애가 성적 방종으로 여겨지던 세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기도 하다. 신여성으로서의 김명순의 연애에 관한 내면적 이해에는 그것을 숭고한 것으로 높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명순에게 ‘사랑’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즉 이상(理想)의 차원으로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곧 ‘人道’인 것이다.

‘사랑’에 관한 김명순의 이와 같은 인식은 매우 성찰적인 것이다. 그는 당시의 낭만주의자들이 시대의 좌절에 의한 슬픔과 한의 정서에 몰입되어 있을 때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뚜렷이 정립해 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순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상주의적 태도는 그것이 인내와 생명을 포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와 인간을 다스리는 최고의 이법(理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명순이 견지하고 있던 ‘사랑’의 성질은 신여성들의 이상이 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제도 내로 실현될 때엔 곧 처참하게 왜곡되고 만다. 현실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내에서 신여성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사랑’은 도구적으로 변질된다. 인간의 이기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순수한 이상은 허약하기 그지없다. 그것이 ‘인내’와 ‘고통’의

로 지탱된다는 사실 또한 이상적 사랑을 더욱 심각하게 부패시키는 것일 뿐이다. 도구화된 사랑은 곧 김명순이 경계했던 ‘비연애(非戀愛)’<sup>20)</sup>로 전락할 운명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여성들이 끊임없이 이상적 ‘사랑’을 찾아나갈 때 그들은 자유라는 미망에 사로잡힌 방종한 자들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신여성들이 말한 이상적 ‘사랑’은 결혼제도라는 현실적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종교와 같은 관념적 세계 속에서나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연애는 근대적 결혼제도의 성립을 가져왔지만 자유연애가 핵심으로 내포하던 ‘사랑’은 결혼의 근대성을 유지시키는 데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제도의 근대성이 구성원들의 평등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권력의 불평등관계로 이루어진 가부장제가 존속하는 한 결혼 제도의 근대성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사랑’은 그것이 지닌 이상적 성격을 실현하는 대신 부조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변질, 왜곡될 뿐이다. ‘사랑’과 관련되는 한 결혼제도의 근대성은 구성원 일방이 아닌 상호간의 합의와 신뢰가 핵심요건이 됨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이 말한 바 ‘비연애’가 아닌 ‘연애’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 4. 결론

김명순의 시를 귀납적으로 살펴볼 때 그것에 나타난 내면 의식은 주로 강한 피해의식,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 사랑에 대한 이상주의적 태도, 모성에 관한 복합심리, 나르시시즘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피해의식’, ‘사회 비판 의식’, ‘이상주의적 사랑’의 측면에서 살펴본 왔는데, 이들 의식이야말로 신여성으로서의 김명순의 자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여기에서 모성에 관한 복합심리란 김명순의 경우 기생이자 첩이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거부감 양면

---

20) 각주 10)참조.

이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나르시시즘’ 의식과 더불어 김명순의 무의식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인바, 김명순의 의식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질 때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신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관련하는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을 필요로 하는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화된 차원으로 나타난 ‘피해의식’, ‘사회 비판 의식’, ‘사랑에 대한 관점’에 주목하였다. 이들 세 가지 의식은 김명순의 의식 가운데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정립하려 했던 김명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이들 세 가지 의식들의 교섭을 드러내면서 김명순은 교육받은 여성 1세대답게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김명순은 사회 속에서 독립된 주체가 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그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존재감을 창작이라는 루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타전인 사회는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김명순은 사회와 남성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이 사회에 관한 보다 철저한 파악과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동시에 김명순은 ‘사랑’이라는 이상주의적 거점에 의해 자신의 의식을 추동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곧 본문에서 다룬 세 가지 내면 의식은 김명순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세우고 결국 신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되는 과정적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 1세대로서 김명순이 사회에 등장할 때 그가 무엇보다 부딪혀야 했던 점은 여성의 낮은 위상의 문제였다. 그것은 근대 여성의 지위가 전근대의 여성과 달라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시기 교육받은 여성들은 전통적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억압들을 근대적 의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되던 것이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이다. 그러나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여성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멸시

를 받게 된다. 전근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는 신여성들의 자기해방적 주장을 허용하지 못했다. 김명순의 강한 피해의식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었던 사회와의 충돌을 배경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여성주의적 주장들은 남성 권력에 의해 배척되어 김명순은 결국 일본으로 망명하기에 이른다.

피해의식은 가해자와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의식이다. 신여성 김명순이 갈등을 겪었던 대상은 곧 남성중심적 사회였다. 이 점은 김명순이 매우 뚜렷한 세계관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지니게 한 계기가 되었다. 김명순의 시적 스타일은 당시 유행하던 낭만주의 사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의 의식은 당시 낭만주의자들이 지녔던 것과 달리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적 사회와의 대결 속에서 김명순은 사회가 모순과 부조리로 부패하였다는 시각을 지닐 수 있었고, 특히 그러한 사회가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폭력적 제도로 지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의 부패를 정화시키고 억압당한 여성을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김명순은 ‘이상적 사랑’을 제시한다. 김명순은 ‘사랑’이 단순한 유희와 방종이 아니라 철학과 도리를 지닌 것으로 본다. 김명순에게 이러한 사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고통에 의해 어렵게 구해지는 것으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숭고한 것에 해당하였다. 김명순은 ‘사랑’을 ‘人道’에 값하는 최고 수준의 것으로 보았다. 즉 김명순에게 사랑은 이상주의적 관점의 그것이었다.

사랑에 대한 이상주의적 시각은 비단 김명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여성 전체의 관점이었을 것이다. 신여성들에게 사랑은 결혼을 포함한 사회의 여성 억압적인 제반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신여성들의 불행하고 파행적인 삶을 돌아볼 때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여성들이 꿈꾸었던 이상적 사랑은 이상에 해당될 뿐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것에 해당하였다. 근대의 결혼제도에서 역시 여전히 가부장제가 존속되

있고 자유연애의 이상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결국 신여성들이 추구했던 여성의 자유와 결혼 제도의 근대성은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김명순의 경우에서처럼 당시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면밀한 탐색을 통해 당대 신여성들의 내면과 사회의식을 확인하는 일은 사회의 근대성과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정자 · 남은혜, 『김명순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김운정, 「1920년대 신여성의 ‘사랑’과 근대적 결혼 제도의 함수관계」, 『한국언어문학』 제62집, 2007.

김일엽, 『청춘을 불사르고』, 김영사, 2002.

김지향, 『한국현대여성시인연구』, 형설출판사, 1993.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스티븐 켄, 임재서 역, 『사랑의 문화사』, 말글빛남, 2006.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 2006.

이덕화, 「자기길찾기로서의 여성문학」,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3.

\_\_\_\_\_,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재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지평, 1988.

최혜실, 「신여성의 사랑과 고백」,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3.

A.브론스키, 나희선 역, 『결혼의 기원과 역사』, 서한사, 1983.

## 〈Abstract〉

# The Modern Woman's Consciousness in Kim Myeong-sun's Poetry

Yunjeong Kim  
(Gangneungwonju University)

Kim Myeong-sun is the representative modern woman in 1920s. She created a lot of works like poem, novel, essay compared to man writer in the same period. But she didn't estimated well due to her radical feminism.

1920s' modern women focused on the free love and the modern marriage. In those days Korean women's life was very painful of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The modern women thought the free love and the modern marriage system could free women from harsh life. So 1920s' modern girls' opinion was somewhat radical.

In the poetry of Kim Myeong-sun, there is such a modern women's identity sense. Kim Myeong-sun concentrated effort to establish women's identity. Her consciousness is caused by the character of modern women.

At first, Kim Myeong-sun had the victim mentality, which was the sense related to men-center society. She felt herself was a victim of the unreasonable society system. Therefore she has the critical mind against the society. For Kim Myeong-sun Korea at that time was rotten and oppressive. That is, Korean society system was a patriarchy. Kim Myeong-sun expressed her opinion of the Korean system in her poems. And she thought love of the exit for women liberation. Because love was directly related to the modern marriage system and love could guarantee the women's right. Kim Myeong-sun regarded love as ideal condition.



Such a Kim Myeong-sun's consciousness show well 1920s' women's reality and dream. But women's dream for liberation and happiness was frustrated. It was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free love and marriage system.

**Keywords** : Kim Myeong-sun, modern woman, modernity, modern marriage, patriarchy, free love, women's liberation, sense of identity, victim mentality, critical mind, love, idealism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 - 4.5 / 게재확정일 : 4.10
---

